



# ‘발람 이야기’(민 22-24장)의 단락 범위 재설정을 위한 쟁언 - 민수기 22-25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sup>1)</sup>

김진명 | 장신대

## 1.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민수기에 수록된 다양한 전승들 가운데 ‘발람 이야기’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문과 시문으로 구성된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라 아니라 모압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출애굽 사건 이후 옛 세대의 마지막 죽음과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 사건(민 25-26장) 직전에 이방인 발

1) \* 본 논문은 장신대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는 최종 본문 상에서 구약의 한 본문을 해석할 때 구약과 신약의 책들 가운데서 관련 본문들을 비교 검토한 후에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구약의 본문을 재해석함으로써 구약 본문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최종 본문 상에서 논의를 진행해 간다는 점에서 공식적연구방법론의 범주에 속하며, ‘본문상호적 해석’(Intertextuality)과 ‘정경비평’ 방법을 응용한 방법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Jin-Myung Kim, *Holiness & Perfection: A Canonical Unfolding of Leviticus 19* (Bern: Peter Lang, 2011), 김진명, “레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제24집(2007,6), 74-91을 참고할 수 있다.

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된 축복과 나귀가 말을 하는 특이한 사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람 이야기에 관한 전체적인 해석의 양상은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를 사악한 주술사로 보는 부정적인 평가이다.<sup>2)</sup>

이는 단순히 주석가들의 해석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발람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본문 전승 자체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미가서 6장 5절은 발람에 관한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반면에 민수기 31장 16절, 신명기 23장 3-6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계시록 2장 14절 등의 본문들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문제는 어떻게 동일한 이야기와 본문에 관한 해석들과 정경상의 전승들이 이처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발람 이야기의 범위를 민수기 22-24장으로 설정해 놓고,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로 인하여 발람 이야기를 주석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본문의 모호성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대조적인 해석과 모호함의 원인을 다시 분석해 보고, 본문의 단락 구분과 해석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단락 범위 설정을 전제로 한 해석 전통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면서 발람 이야기의 새로운 단락 범위(민 22-25장)를 재설정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종 본문 상에 나타난 발람 이야기의 정경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각 본문들에 나타난 해석상의 특징들을 파악해 보고, 새로운

---

2) G. W. Coats, "Balaam: Sinner or Saint?," *Biblical Research*, 18, 1973, 21-29 / G. J. Wenham, *Number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vol. 4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1), 164-169. 1990년대까지의 발람 이야기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정보는 Michael S. Moore, *The Balaam Traditions—Their Character and Development* (Atlanta: Scholars Press, 1990), 1-11을 참조할 수 있다.

단락 범위 설정의 근거를 찾아보려 한다. 정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 본문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본문 해석 전통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 2. 민수기 22:1-24:25 단락 설정과 본문 연구사

### 1) 발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람 이야기의 단락 범위를 민수기 22-24장으로 설정하고 본문을 해석한 학자들 가운데 본문의 모호함은 두 가지의 상이한 자료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본래의 본문 전승에서 발람은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고 파악한 이들이 있다.

그레이(G. B. Gray)는 발람의 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을 기록한 22장의 내용은 두 개의 자료를 반영하는 증거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발람 이야기에서 J보다는 E의 특징들이 명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더 오래된 J 자료들이 E 안에서 주요 주제의 발전 과정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레이는 발람이 발락의 뇌물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J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주제이지만(22:7, 24:1), 발람의 탐욕과 관련된 저자의 평가는 현재 형태의 본문에서 모호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버드(P. J. Budd)는 그레이와는 달리 전승의 대부분이 초기 전승들을 가지고 작업한 E 자료가 J기자에 의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

3) 정경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관하여는 김이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이해”, 「구약논단」 제24집 (2007. 6), 33-51을 참고할 수 있다.

4) G. B. Gray, *Numbers, ICC*. (Edinburg: T.&T. Clark, 1903, 1976), 307-321. 그레이는 발람 이야기에서 J와 E의 설화들은 주전 9-8세기경의 자료들이라고 보았고, 시문들은 더 오래되거나 더 최근의 자료가 삽입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313쪽). 그는 발람 이야기의 동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아웨의 돌보심에 관심을 기울였던 주전 7세기 예언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316쪽).

며, 발람 이야기는 어느 정도 창세기 12장 1-3절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주석의 성격을 가진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야웨의 주권과 발람의 선지자 기능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전승이 현재의 본문에 결합된 것은 요시아 시대에 야웨 신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야웨 기자’(Yawist)의 작업 결과라고 보았으며, 발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후의 이야기 전승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5)</sup>

올슨(Dennis T. Olson)도 민수기 22-24장에서 본질적으로 발람은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발람의 신탁은 창세기 12장 1-3절에 기록된 약속의 재확인으로서 미래적 환상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 약속은 25장의 옛 세대의 마지막 멸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26장의 새로운 세대는 발람을 통해 주어진 축복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올슨은 발람에 대한 평가의 모호성이 성경적 증언 자체의 복잡성에 있다고 주장했다.<sup>6)</sup>

위에서 살펴본 해석들은 민수기 22-24장에서 발람은 긍정적인 인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이 이야기의 전승 과정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평가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설명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 2) 발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

웬햄(G. J. Wenham)은 발람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한 구약 본문들 자체의 평가들을 지적하면서, 민수기 22-24장은 나귀를 통해 어리석음이 드러난 예언자로 발람을 보았다는 부정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

---

5) P. J. Budd, *Numbers*, WBC vol. 5, (Waco: Word Books, 1984) 256-273.

6) Dennis T. Olson, *Number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96), 140-151, 클라인스(David J. A. Clines)도 이방인 발람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2:1-30에 기록된 약속의 재확인이라고 보았으며(D. J. A. Clines, *The Theme of the Pentateu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2], 60-61), 정중호도 발람이 복속가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기 때문에 예언자적 활동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정중호, 「민수기 II」, 한국구약총서 KOTL, 005,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190-192.

하면 발람은 성자가 아니며, 본문 저자가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7)</sup>

더글라스(M. Douglas)는 발람이 죄인인가 혹은 성자인가를 판단하는 도덕적 입장이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주전 5세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발람은 처음부터 나쁜 인물이었으며, 그가 돈을 위해 발람의 초청을 수락하였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결정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리는 본문에서 발람은 나귀에 의해 생명을 건지게 되는 희극적인 인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sup>8)</sup>

발람에 의해 선포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과 이야기 속에서 발람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라도, 전적으로 이 단락의 범위 내에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만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본문 형성의 배경을 주전 5세기로 보는 입장에서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본문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시도 역시 본문의 형성 시기를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논리적인 한계성을 갖는다.<sup>9)</sup>

### 3) 발람에 대한 중립적 평가

발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문에 대한 초점을 달리하거나 발람의 위치 자체

---

7) Wenham, *룻길*, 164-169.

8) M. Douglas, *In the Wilder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16-221. 웨이(K. C. Way)는 본문 가운데 말하는 나귀의 역할에 주목하여, 나귀가 예언자의 역할에 수행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Kenneth C. Way, "Animals in the prophetic world: Literary reflections on Numbers 22 and 1 Kings 13", *JSCOT* vol. 34, no.1 (2009), 47-62.

9) 위에서 살펴보았던 그레이와 버드의 주장이 그러하다. 각각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시각 혹은 주전 7세기의 상황이 발람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를 재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한 경우들도 있었다.

노트(Martin Noth)에 의하면 발람 설화 전체가 오경 민담 자료에 속하며, 22장 1절의 여행일정만 P 에 해당하고, 그 외의 나머지 본문은 E 와 J 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단지 발람이 자신의 신적 주인이고 세계사의 주인으로서 야웨를 인정했다는 점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외국인이 야웨를 고백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sup>10)</sup>

이원우는 민수기 22-24장의 느슨하게 연결된 것 같은 많은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각 단락의 기능과 연결성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발람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의 문제 보다는 이야기 속의 산문과 시문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모압왕 발람의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야기 초반에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며, 이 이야기에서 발람은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sup>11)</sup>

이러한 해석들은 일반적으로 발람이야기로 알려진 민수기 22-24장을 발람 중심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야기 가운데서 그 분량과 역할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발람에 대한 해석의 난해함을 회피하는 입장이라는 비평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10) Martin Noth, *Das vierte Buch Mose: Numeri, A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1977), 151-154.

11) Won W. Lee, *Punishment and Forgiveness in Israel's Migratory Campaig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168-172.

### 3. 발람 이야기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

#### 1) 민 22:1-24:25 단락 범위에서의 발람 이야기

##### (1) 발람 이야기의 위치와 구성

민수기의 구조를 지리적인 배경에 기초하여 나눌 경우에는 1:1-10:10 시산 지역, 10:11-22:1 가데스 지역, 22:2-36:13 모압 평지의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2)</sup> 22-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로 구성된 단락으로서, 특별히 26장에서는 출애굽 제2세대의 새로운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 가운데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부분에서 22-24장의 발람이야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부는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시문이 포함될 부분으로서 특징을 보여준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22:1(2)-6 도입,  
22:7-14 발람과 하나님의 1차 대면,  
22:15-30 발람과 하나님의 2차 대면,  
22:21-35 발람과 하나님의 3차 대면 (+ 나귀가 말하는 사건)
- b. 22:36-40 도입,  
22:41-23:12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1차 축복,  
23:13-26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2차 축복,  
23:27-24:25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3차 축복 (+ 추가적인 예언들)

##### (2) 발람 이야기의 내용과 해석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영토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기 위한

---

12) G. Wenham, *The Pentateuch, Exploring the Old Testament*, vol. 1, (London: SPCK, 2003), 114-116.

전쟁을 준비하면서 (22:6), 먼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이라는 유명한 주술사를 초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처음에 발락의 초청을 거절했지만, 그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좀 더 많은 ‘복채’를 얻기 위해서 수를 쓴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진심이었는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sup>13)</sup> 하지만 결국 발락의 요구를 수락한 발람은 길을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발람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였다(22:32).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특이한 사건은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발견하고 발람에게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다.

이후에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23:10), 하나님의 보호하심(23:21-23), 땅에 대한 약속(24:5-7), 열방에 대한 약속(24:16-17)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창 12:1-3)이 확장된 특징을 보여준다.<sup>14)</sup>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 길’ (לְדַרְכּוֹ לְרַדְרָקוֹ) 라 다르코)로 갔고, 발람은 ‘자기 곳’ 으로(לְמִקְוֵמוֹ לִרְמִקְוֵמוֹ) 리므코모) 돌아갔다(24:25). 하지만 발람이 떠나간 ‘그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이 표현은 마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리즈물의 속편을 기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 후에 31장 8절에서 갑자기 등장한 발람이 미디안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처형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들도 생긴다. 그렇다면 미디안 사람의 지역이 발람에게는 ‘그의 장소’였던 것일까? 또 대체 왜 발람은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일까? 각각의 이야기들은

13) 윗글, 114. 원함은 이러한 거절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원한다는 암시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였다.

14) 윗글, 115.

일종의 수수께끼 혹은 문학적인 베일에 싸인 것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다.

민수기 22-24장의 발람 이야기에서 발람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모압 왕 발락의 금전적인 유혹과 반복적인 요구를 수락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본문에서는 예언자 발람의 옳음과 그릇됨이 모호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진 모든 계약과 수단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라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예언자를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sup>15)</sup>

## 2) 구약에서의 정경적 전개

### (1) 민수기 31장 16절의 발람 이야기(미디안)

민수기 31장은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31장 1-2절에 기록된 전쟁 수행 명령은 민수기 25장 16-17절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보복 전쟁의 이유를 밝힌 25장 18절의 내용도 31장 16절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었다.<sup>16)</sup> 31장의 미디안 전쟁은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

15) 윌글, 114-115. 웬함은 여기서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할 정도라면, 돈 욕심이 가득한 이방인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발람' 전승은 정경 외적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에 요단 동편 계곡의 텔 데이르 알리(Tell Deir 'Alla)에서 발견된 주전 7-8세기경의 파편 본문들에서는 '신들의 선견자'라는 표현과 발람의 이름이 확인된 바 있다(Moore, 윌글, 1-2). 또한 유대교 랍비 문헌들에서도 발람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왔다(J.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469-471). 이들 자료들은 구약과 신약의 정경 범위 내에서 관련 본문들을 검토하는 본 논문의 전체와 방법론과 연구 범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면 관계상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16) 민 25:16-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민 3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갇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따라 이루어진 전쟁이므로 전쟁의 성격상 ‘여호와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의 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17)</sup> 또한 민수기 25장과 31장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두 본문 상호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드러내 주었다.

민 25:18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 31:16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은 한 절로 구성된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함축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16절의 ‘발람의 꾀를 따라’는 히브리어 ‘비드 바르 빌르얌’ (בִּדְבַר בְּלַעַם)의 번역이며 이는 <표준새번역>에서 ‘발람의 말을 듣고’로 번역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이 낱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이어진 ‘브올의 사건’ (רֵעוּת בְּאוֹל)은 이 내용이 민수기 25장의 ‘비알 브올’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싯딤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더불어 행음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사건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1장 16절에서 ‘염병’으로 번역된 ‘막계과’ (מַגֵּפָה)도 25장 9절과 18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용어로서 두 본문 상호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민수기 25장 18절에서 언급한 ‘그들’은 그 앞의 17절에서 말한 미디안 사람들이다. 민수기에서 24장과 25장이 분리되어 해석될 경우에는 브올

---

17) 강사문, “전쟁에 대한 성서적 이해,” 『구약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228-247. 김진명, 「민수기」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268-269.

의 사건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독자적인 행동들로 일어난 것이라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31장 16절에서 ‘이들’로 언급된 미디안 사람들은 25장에서 ‘그들’로 언급되었던 동일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발람’의 계략에 의한 것임을 31장 16절에서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민수기 31장의 조명하에서 민수기 22-24장의 발람 이야기와 25장의 브올 사건은 한 단락의 범위에 속한 일연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일들로 해석할 수 있다.

31장 16절에서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언급은 31장이 바알브올 사건의 25장과 그 앞의 22-24장에 기록된 발람 이야기를 한 단락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25장에서는 ‘발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22-24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상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장 16절의 ‘미알 바도나이’ (מִיָּאֵל בְּיָהוּדָה)는 브올의 사건을 야웨께 대한 범죄로 규정한 표현이며, ‘미알’은 야웨께 대한 불성실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풀이할 수 있는 낱말이다 (수 7:1, 겔 14:13-20 cf. 민 5:11-31). 31장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바알 브올의 사건이 우상숭배의 사건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파괴하는 차원의 심각한 죄였다고 이해하였다.<sup>18)</sup>

31장 16절의 내용은 이처럼 22-24장만을 가지고 구별해내기 어려웠던 발람에 대한 평가의 모호함을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31장에서는 22-25장 전체를 연결시켜 미디안 사람들 배후에서 그들에게 속임수를 제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 발람의 죄였다고 해석하였다.

---

18) H. Ringgren, “מִיָּאֵל” *TDOT* vol VIII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460-463.

(2) 신명기 23장 3-5절(MT 23:4-6)의 발람 이야기(모압과 암몬)

신명기 23장 1-7절은 여호와의 총회 출입에 관한 규정이다. 모압과 암몬 사람에 관한 규정은 3-5절에 해당하는데, 그 금지 이유가 4-5절(MT 23:5-6)에 수록되어 있다. 모압 사람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라는 신명기 23장 4절 (MT 23:5)은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명기 23장 4절 에서 ‘뇌물을 주고’로 번역된 ‘사카르’ (סָכַר)는 ‘~를 고용하다’라는 뜻의 동사로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초청해온 사건 전체를 의미할 수 있는 낱말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발람이 민수기 22장 18절에서 언급한 ‘은과 금’ (כֶּסֶף וְזָהָב)과 22장 7절의 미디안 장로들이 가져간 ‘복채’ (קְסָמִים)에 해당하며, 신명기 23장 4절의 “아람-나하라임(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은 민수기 22장 5절의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갹 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라는 내용과 서로 상응하고 있다. 신명기 23장 4절(MT 5)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민수기 22장의 산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면, 신명기 23장 5절 (MT 6)은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네 차례의 축복과 관련된 민수기 23-24장의 시문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명기 23장 3-5절 본문은 민수기 22-24장의 단락 범위 내의 내용들과 상응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발람을 모압 왕 발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말함으로써 그에 관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sup>19)</sup>

---

19) 티게이(J. H. Tigay)도 민수기에서 발람의 의도는 모호하지만,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그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12.

(3) 미가 6장 5a절의 발람이야기

미가는 이사야처럼 주전 8세기에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1).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고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5절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미 6:5 내 백성이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꺾은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싯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 5a 기억하라 - 1) 모압 왕 발락이 꺾은 것 / 발람이 대답한 것(민 22-24장)
- 5b                    2) 싯딤(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반역으로서 바알브올 사건, 민 25장 / 가나안 진입의 출발장소, 수 2:1)  
                          길갈(가나안 땅 진입 후 첫 번째로 진을 치, 수 4:19)
- 5c 알 수 있다 - 주님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

6장 5절의 첫 부분(5a)은 민수기 22-24장의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반영한다. 다음에 언급된 ‘싯딤’은 민수기 25장의 바알 브올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지만, 여호수아 2장 1절의 가나안 진입 직전의 장소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의 요단강 도하 후에 세워진 길갈의 진과 연관성을 갖는다(5b). 이 문장들은 아웨의 공의를 알기 위해(5c) 기억하라는 요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의 길'(τῆ ὁδῷ τοῦ Βαλαάμ 테 호도 투 발람)<sup>22)</sup>은 민수기 22장 32절의 내용과 상응하는 표현으로서, 발람의 길을 막아 선 아웨의 사자가 “네 길이 사악하므로”(כִּי יָרַחְךָ אֱלֹהֶיךָ כִּי יָרַחְךָ 키 야라트 핫대레크)라는 말을 통해 발람이 발람의 초청을 받아 가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sup>23)</sup>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2장 15-16절에서 발람이 불의의 삶을 사모하였으며, 그의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함으로써 그의 미친 행동이 저지되었다는 해석을 통해 결국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지적하였다. 거짓교사들은 발람을 따르는 자들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구약 자료들의 사용은 그 당시 공동체의 독자 혹은 청중이 구약의 이야기들에 이미 친숙해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sup>25)</sup>

## (2) 계시록 2장 14절의 발람 이야기

요한계시록 2장 12-17절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관한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14절

22) 유다서 1장 11절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의 경우처럼 초대교회 시대의 거짓 교사에 관한 교훈을 전달하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람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개념화하여 나타내 주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병행되지 않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는 발람 이야기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23) 민수기 22장 32절에서 사용된 '야라트' 동사는 적절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발람의 길과 연관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민수기 24장 25절의 표현들이다. 민수기에서는 발람이 '자기 곳으로'(לְמִקְוֵי רִימְקוֹ 리모코모) 돌아갔고, 발람은 '자기 길'(לְדַרְכּוֹ 레다르코)로 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베드로후서에서는 장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콴' 대신에 길을 뜻하는 '데레크'의 헬라이어 번역인 '호도스'를 발람에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4) R. J. Bauckham, *Jude, 2 Peter, WBC* vol. 50 (Waco: Word Books, 1983), 267.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브울'의 아들 발람을 '보소르'의 발람으로(τῆ ὁδῷ τοῦ Βαλαάμ τοῦ Βοσόρ 테 호도 투 발람 투 보소르) 번역하였다. 이는 LXX와 다른 낱말이다(αὐτὸς Βαλαάμ υἱὸν Βεωρ). '보소르'는 육체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사르'의 말놀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육의 아들' 발람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 G. J. Wenham, *Story as Torah* (Edinburgh: T&T Clark, 2000), 132-133.

에서 발람 이야기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발람의 교훈’(τὴν διδαχὴν Βαλαάμ 텐 디다켄 발라암)은 민수기 22-24장의 내용만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뒤 이어진 내용들은 곧바로 민수기 25장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 브올의 우상숭배 주제와 관련되며, ‘행음’은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벌어진 음행의 문제와 상응한다.<sup>26)</sup>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발람의 교훈’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니골라 당’의 교훈과 연결시켰다(계 2:15).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버가모 교회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과 문제들로서 이를 다루는데 발람 이야기가 적용되고 재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이러한 해석은 발람 이야기의 범위를 22-25장까지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싯딤에서의 사건 배후에 발람의 속임수와 가르침이 있었다고 인식하면서 본문을 해석하였으며, 여기서 발람은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되었다.

---

26) 계 2:14의 두 가지 문제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금지된 음식을 먹는 일과 결혼에 있어서 금지된 일들(고전 5:1, 마 5:32)로 해석되기도 한다. J. Massyngberde, *Revelation, AB* vol. 38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5), 398-399.

## 4. 발람이야기의 정경적 전개와 재해석

### 1) 발람 이야기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분석과 평가

발람 이야기의 정경적 전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본문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람 이야기가 전개된 본문들 가운데 민수기 31장은 25장의 구절과 용어들을 문자적으로 인용한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구약의 민수기 31장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2장은 민수기 22-25장의 단락 범위를 전제로 하여 발람 이야기의 내용과 요소들을 반영하였으며, 발람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공통적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민수기 22-25장을 발람 이야기의 범위로 설정한 본문들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의 배후에 발람의 사주가 있었다는 해석을 제시하면서, 발람의 죄와 부정적인 면모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하지만 민수기 22-24장을 발람 이야기의 단락 범위로 설정한 구약과 신약의 책들은 각기 다른 해석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신명기 23장과 베드로후서 2장은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했던 어리석은 선지자였다고 보았지만, 미가서 6장은 발람이 발람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대답을 했던 내용과 동시에 싯딤에서의 사건 배후 인물이었을 두 가지 가능성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발람 이야기 자체는 이처럼 해석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발람 이야기를 기존의 단락 범위 내에서 해석할 경우에 발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해석적인 모호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

게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다.<sup>27)</sup>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들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    | 발람 이야기의 단락 범위와 발람에 대한 해석의 양상 |               |             |        |
|----|------------------------------|---------------|-------------|--------|
|    | 민 22-24장 단락                  |               | 민 22-25장 단락 |        |
| 구약 |                              |               | 1) 민 31:16  | 부정적 해석 |
|    | 2) 신 23:3-6                  | 부정적 해석        |             |        |
|    | 3) 미 6:5a                    | 긍정/부정적 해석 가능성 |             |        |
| 신약 | 1) 벵후 2:15-16                | 부정적 해석        |             |        |
|    |                              |               | 2) 계 2:14   | 부정적 해석 |

## 2) 발람 이야기의 새로운 단락 범위 제안과 재해석: 민수기 22:1-25:18

민수기 22-24장에 수록된 발람 이야기와 25장에 기록된 브올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별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해석되어 왔다.<sup>28)</sup>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 상에서 민수기 25장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장 구조상으로 양쪽 부분의 내용들은 연결된 이야기로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본문 자체에서 이미 열려져

27) 왕대일의 경우, 민수기 22-24장과 25장을 분리해서 주석하였다. 그는 22-24장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발람에게 대접도 받지 못한 채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다는 설명을 통해 매우 긍정적으로 발람을 해석하였다(546-547쪽). 하지만 31장 8절의 주석에서 민수기 22-24장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었지만, 31장에서 발람은 “사악한 선동자”로 거론되었다는 언급만 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발람에 대한 평가의 모호성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46-548, 647. 앤더슨과 프리드만은 발람에 대한 해석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논쟁 가운데 있어왔음을 지적하고, 그의 수동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언급한다. F. I. Andersen, D. N. Freedman, *Micah, AB* vol. 24 (New York: Random House, 2000), 520.

28) 민수기 25장의 브올 사건만 별개로 다룬 본문들도 있다(시 106:28-31, 호 9: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발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본문들은 다루지 않았다.

있었다.<sup>29)</sup> 그렇다면 민수기 31장과 요한계시록 2장의 본문들처럼 민수기 22-25장을 발람 이야기의 단락 범위로 재설정하여 본문을 파악할 경우에, 발람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와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해 갈 수 있다.<sup>30)</sup>

민수기 31장 8절은 미디안 전쟁에서 발람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이 역시 민수기 22-24장과 25장이 독자적인 사건으로 파악된다면 발람이 왜 그곳에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본문이다. 하지만 22-25장의 새로운 단락 범위를 전제로 할 때,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민수기 25장의 브올 사건이 발람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는 해석의 논리적 개연성을 지지해 주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정경 전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발람 이야기의 단락은 민수기 22-25장으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단락 범위의 설정은 서로 무관하게 보였던 개별적 사건과 요소들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인가를 새롭게 보여준다.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통해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으며, 금전적인 유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도 보여 주었지만, 동시에 사건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람의 태도와 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나타낸 부분들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최후와 생애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

---

29) MT(BHS)의 민수기 24장 마지막 부분에 '개방단락' 표시가 있다. 그러나 개방단락 표시가 언제나 의미 단락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30) 박철현도 민수기 22-24장과 25장이 밀접한 연결성을 갖는 본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민수기 31장 8, 16절만을 그 연결성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346쪽). 박철현, "야누스적인 인간 발람과 이스라엘의 운명" - 민수기 22-25장 주해와 적용, 목회와신학편집부, 『민수기』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15-351.

였음을 보여주었다.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발람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방법으로 대적자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펼치는 죄를 범하였다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부분적인 시각에서 발람에 대한 중립적 혹은 부분적 긍정의 해석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경 전체에 걸쳐 전개된 발람 이야기의 큰 흐름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은 발람을 죄악 가운데 멸망한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고 평가하였다.

## 5. 결론

발람 이야기에 관한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는 본문 해석에 있어서 그 단락 범위의 설정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 본문이 속한 단락 범위의 설정에 따라 본문 해석의 내용과 방향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해석들이 전개될 수 있다. 발람 이야기의 단락을 민수기 22-24장으로 설정한 본문의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발람에 대한 평가의 모호함은 그 단락 범위의 본문 자체에 내포된 긍정과 부정의 요소들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본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기존의 단락 범위 내에서 본문을 해석한 주석가들의 발람에 관한 대조적인 평가와 논의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발람 이야기를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해 보았을 때 본문의 범위를 민수기 22-25장의 확장된 단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수기 22-24장에 수록된 발람 이야기의 여러 요소들과 25장의 브올 사건을 별개의 이야기로 놓고 해석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발람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발람은 25장

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들의 숨은 배후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31장에 기록된 바대로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처형당한 이유에 개연성을 제공한다. 22-24장과 25장과 31장의 사건들은 일련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수기 22-25장 단락 범위의 재설정을 통한 발람 이야기의 재해석은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함께 본문의 문학적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발람이라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 6.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 김이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이해”, 「구약논단」 제24집 (2007. 6), 33-51
- 김진명, 「민수기」 (한국장로교총회창립100주년기념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_\_\_\_\_, “레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제24집 (2007. 6), 74-91.
- 박철현, “아누스적인 인간 발람과 이스라엘의 운명 - 민수기 22-25장 주해와 적용”, 「민수기」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15-351.
- 왕대일, 「민수기」 (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정중호, 「민수기 II」 (한국구약총서 KOTL, 005),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 Andersen, F. I./Freedman, D. N., *Micah, AB* vol. 24 (New York: Random House, 2000).
- Barker, K. L./Bailey, W.,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Ne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 Bauckham, R. J., *Jude, 2 Peter*, (WBC vol. 50), (Waco: Word Books,

- 1983).
- Budd, P. J., *Numbers*, (WBC vol. 5), (Waco: Word Books, 1984).
- Clines, D. J. A., *The Theme of the Pentateu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2).
- Coats, G. W., “Balaam: Sinner or Saint?,” *Biblical Research*, 18(1973), 21–29.
- Douglas, M., *In the Wilder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Gray, G. B.,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1976).
- Hillers, D. R., *Michah*,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Kim, Jin-Myung, *Holiness & Perfection: A Canonical Unfolding of Leviticus 19*, (Bern: Peter Lang, 2011).
- Lee, Won W., *Punishment and Forgiveness in Israel’s Migratory Campaign*,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 Massyngberde, J., *Revelation*, (AB vol. 38),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5).
- Milgrom, J.,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Moore, S., *The Balaam Traditions—Their Character and Development*, (Atlanta: Scholars Press, 1990).
- Noth, M., *Das vierte Buch Mose: Numeri*, (A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1977).
- Olson, D. T., *Numbers*, (Interpretation), (John Knox Press, 1996).
- Ringgren, H., “בַּעַל” *TDOT* (vol VIII),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460–463.
- Smith, R. L., *Micah–Malachi*, (WBC vol.32), (Waco: Word Books, 1984).
- Tigay, J.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Way, K. C., “Animals in the prophetic world: Literary reflections on Numbers 22 and 1 Kings 13”, *JSOT* vol. 34(2009), 47–62.
- Wenham, G. J., *Number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vol. 4),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1).

\_\_\_\_\_, *Story as Torah*, (Edinburge: T&T Clark, 2000).

\_\_\_\_\_, *The Pentateuch*, (Exploring the Old Testament), (vol. 1), (London: SPCK, 2003).

Wolf, H. W., *Micah* (tr. by G. Stansel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0).

## 검색어

발람 이야기

정경적 전개

민수기 22-25장

본문의 범위 설정과 해석의 관계

## A Proposal of the resetting paragraph for the Story of Balaam(Num 22-24)

– A Study for the Canonical Unfolding of Num 22-25 –

**Jin-Myung Kim, T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paragraph of the story of Balaam and reinterpret this story in the whole context of the Bible. The method of this article is ‘an exegetical study for the canonical unfoldings’ and it is applied to the study of Balaam story(Num 22-24).

“Balaam, a sinner or saint?” This question is connec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story of Balaam. Until now, most of Old Testament studies have attempted to interpret Balaam’s story in the paragraph of Num 22-24 and suggested the interpretive ambiguity of Balaam. But this paper explores the canonical unfolding of Balaam’s story from the OT

to the NT(Num 31:16, Deut 23:3-6, Mic 6:5, 2Pet 2:15-16, Rev 2:14). In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comparing this story with the connected texts(Num 31:16, 2 Pet 2:15-16, Rev 2:14), negative character and concrete sin of Balaam is revealed. It is also found that some of the connected texts of this story have understood the story of Balaam in the paragraph of Num 22-25(Num 31:16, Rev 2:14).

After this scrutiny of the story of Balaam in the whole context of the OT and the NT, it is concluded that this story can be interpreted in the new paragraph of Num 22-25. This interpretation of the new paragraph shows what the hidden guilty of Balaam is. Superficially Balaam was a messenger of God, but substantially he was an evil man who advised the Moabite and the Midian to tempt the Israelite into idolizing(Num 25).

## Keywords

Balaam story

Canonical unfolding

Num 22-25

paragraph and interpretation

- 투고일: 2012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2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05일